



## 1/4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 소폭 증가

- 1/4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은 부동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.7% 증가한 58조 달러로 나타남.
  - 가계 순자산은 5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2009년 1/4분기 49조 4천억 달러보다 8조 6천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/4분기 65조 8천억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.
  - 가계자산은 부동산 가치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1.9% 감소한 반면, 주가상승 등으로 금융자산이 2.4%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.2% 증가한 71조 9천억 달러로 나타남.
  - 가계부채는 모기지 부채 감소로 인해 0.5% 감소하면서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, 모기지 부채의 감소는 부채상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기지에 대한 디폴트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.
  
- 가계 순자산의 증가가 민간소비를 확대하는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,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4월 이후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/4분기 이후에는 가계자산 증가세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.
  - 골드만 삭스의 앤드류 톨톤(Andrew Tilton)은 가계 순자산의 증가가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.
  - 그러나 IHS 글로벌의 그레고리 데코(Gregory Deco)는 4월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, 최근 가계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더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함.

(Bloomberg 등, 6/9)